

차나 한잔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0510월 교육청]

그는 아침 나절에 그가 관계하던 신문사에서 문화부장에게 속히 우던 일이 생각났다.

그가 해고당한 것을 알리기 전에 문화부장은 먼저 ‘오늘 치 만화 좀……’ 했던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해고당할 것을 예측하고 있던 그를 당황하게 했던 것이다. ‘오늘 치 만화……’ 라고 했으면 그는 자기가 해고당하지 않았음을 알았으리라. 또는 ‘오늘부터는 그리실 필요는 없게 됐습니다’ 라고 하면 유감스럽긴 하지만 그것도 뜻은 분명하다. 그런데 ‘오늘 치 좀……’ 했던 것이다. 오늘 치의 만화를 보아서 재미가 있으면 계속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해고다, 라고밖에 들리지 않던 그 말투. 그는 갑자기 짹 소리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런 충동을 눌러 가면서 그는 느릿느릿 걸었다. 거리의 모퉁이에서 공중전화가 눈에 띄었다. 집에 전화가 있다면 아내를 불러내 있으면 좋겠다. 아내와 함께 밤늦도록 거리를 쏘다닌다면 좋겠다. 쇼윈도라도 보면서, 그레 쇼윈도라도 보면서.

그는 누구에게라도 좋으니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해 보고 싶었다. 열린 생각난 사람이 옛적에 술을 사주던 선배 만화가 김 선생이었다. 김 선생은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신문사의 자리에 있었다.

“김 선생님, 결국 목잘렸습니다.”

저쪽에서는 잠시 침묵이었다.

“제기랄, 또 한잔 할까?”

“그럼시다. 나오세요. 아니 제가 선생님께 지금 가죠.”

“오게. 제기랄, ㉠ **한잔 하세.**”

수화기를 놓고 나올 때 그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걸 느꼈다.

그는 김 선생이 따라 주는 술을 빨리빨리 마셨다.

“좀 천천히 마시게.”

김 선생은 걱정이 되는 모양이었다.

“괜찮아요.”

그는 손등으로 입가를 닦으며 싱긋 웃었다.

“우리나라 만화가들의 그 단순하면서도 회화적(繪畵的)인 선이 얼마나 훌륭한 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르고 있단 말야.”

김 선생은 술잔 속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기계로 그린 것 같은 양키들의 만화가 진짜인 줄로 알고 있거든.”

“만화가 우스우면 그만이지 귀찮나게 회화적이고 아니고를 찾게 됐어요?”

그는 또 술을 들이켰다. 김 선생은 그를 힐끗 쳐다보았다.

“제가 군대 있을 때 말입니다.”

[가] 그는 말했다.

“남들은 제가 정훈¹⁾으로 떨어졌다고 부러워했거든요. 편할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전 말예요, 총대를 쥐지 않으니깐 말이 지요, 군인 기분이 안 났거든요.”

그는 취해 오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아마 그때 총대를 쥔 사람들이 지금은 안정된 직장에들 앉아 있겠지요? 저는 항상 만화만 붙들고, 남들은 편하러니 부러워하지만 실상은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고 말입니다.”

“그렇까?”

김 선생이 말했다.

“술이 없으면 말야…….”

그들의 뒤쪽에 앉아 있는 패들의 하나가 소리쳤다.

“인생이란 말야…….”

“허, 또 나오시는군.”

“허, 저 소리 듣기 싫어서 이젠 술 끊어야겠어.”

누군지가 소리쳤다.

“문화부장이 ㉡ **차나 한잔 하자**고 하더군요.”

그는 속으로는, 자기가 만화 연재를 부탁하러 갔던 문화부장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었다.

“다방에 가서 그 양반이 그러더군요. 사람 웃기는 방법의 몇 가지 패턴을 안다고 곧 만화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 양반이 그랬어요. 두꺼비 같은 눈알을 부라리면서 말입니다.”

찾값을 앞질러 내버리던 그 키가 작달막한 문화부장. 날 무척 무안하게 해줬었지.

“그러면서 말입니다, 너는 미역국이다, 이거죠.”

자기네 사장이 얼른 뒤통 달라는 기도를 하라던 그 사람. 난 참 면목이 없어서 혼났지.

“차나 한잔. 그것은 일종의 추파(秋波)다. 아시겠습니까, 김 선생님?”

그는 혀가 잘 돌아가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그 속에서 성실을 다했던 하나의 우연이 끝나고…….”

그는 술을 한 모금 꿀꺽 마셨다.

“새로운 우연이 다가온다는 징조다. 헤헤, 이건 낙관적이죠, 김 선생님?”

그는 김 선생이 방금 비워 낸 술잔에 취해서 떨리는 손으로 술을 따랐다.

“차나 한잔. 그것은 이 회색빛 도시의 따뜻한 비극이다. 아시겠습니까? 김 선생님, 해고시키면서 차라도 한잔 나누는 이 인정. 동양적인 특히 한국적인 미담…… 말입니다.”

“그, 어린이신문에 그리고 있는 거라도 열심히 하고 있게. 기다리면 또 뭐가 생길 테지.”

김 선생이 술잔을 들면서 말했다.

“자, 드세.”

그는 자기의 술잔을 잡으려고 했다. 잘못해서 술잔이 넘어져 버렸다. 그는 손가락끝에 얼얼해진 술을 찍어서 술상 위에 ‘아툼×군’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다.

“자, ‘아툼×군’, 차나 한잔 하실까? 군과도 이별이다. 참 어디서 헤어지게 됐더라.”

그는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은 다른 손으로 자기의 이마를 한번 짹 짹 때렸다. 골치가 쑤셨기 때문이다.

“오, 화성인들의 계략에 빠져서 군이 포로가 되어……. 바야흐로 생명이 위험해져 있는 데서 ‘다음 호에 계속’ 이었군…… 미안하다, ‘아툼×군’…… 사람들은 항상 그런 걸 요구하거든. 아슬아슬한 데서 ‘다음 호에 계속’.”

[A]

그는 다 그려진 ‘아툼×군’의 얼굴을 다시 손가락끝에 술을 찍어서 지우기 시작했다.

“미안하다. ‘아툼×군.’ 어떻게 군의 힘으로 적진을 뚫고 나오기 부탁한다. 이제 난…… 힘이 없단 말야. 나와 헤어지더라도……. 여보게, 우주의 광대하고.”

그러면서 그는 양쪽 팔을 넓게 벌렸다.

“어두운 공간 속에서 영원한 소년으로 살아 있게.”

그들은 밤늦도록 그런 식으로 술집에 앉아 있었다.

1) 정훈(政訓) 군인을 대상으로 한 교양, 이념 교육 및 군사 선전, 대외 보도 따위에 관한 일을 통틀어 이르는 말

- 김승옥, <차나 한잔>

※ 다음의 <보기>를 읽고 다음의 두 문제를 푸시오

〈보기〉

김승옥의 작품들은 산업화, 도시화, 근대화가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한 거대 변화의 징후들을 섬세하고 날카롭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가 주로 꼼꼼하고 정감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은 1960년대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의 사람살이이다.

1. <보기>에 근거할 때, 위 글에 나타난 도시적 삶의 양상을 통해 작가가 보여주려 했던 바를 바르게 추리한 것은?

- ① 이촌 향도로 인한 도시 집중화를 배경으로 하여 욕망 실현의 공간으로서의 도시를 탐색한다.
- ② 계약적인 이익 사회에서 살아가는 도시인의 삶의 조건과 인간관계에 나타나는 특성을 조명한다.
- ③ 근대 도시의 공간과 시간을 감금과 구속의 이미지를 통해 살펴보고, 도시 탈출 의지와 열망을 모색한다.
- ④ 경제 성장과 도시 개발 과정에서 주변부로 밀려나는 도시 노동자, 빈민들의 열악한 생활 환경에 집중한다.
- ⑤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전통적인 삶의 붕괴와, 그로 인한 정신적 삶의 타락상이나 병리 현상에 주목한다.

2. '㉠한잔 하세'와 '㉡차나 한잔 하자'를 중심으로 위 글을 감상한다고 할 때, 적절한 의견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은 ㉡와는 달리 진정성이 결여된 우회적 어법이다.
- ② ㉠은 위안을 주고, ㉡는 모욕의 감정을 유발하고 있다.
- ③ '술'과 '차'는 각각 인간관계의 유형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 ④ ㉠과 ㉡가 대등하게 공존하는 모습을 통해 정체성의 위기를 드러낸다.
- ⑤ 내면을 드러내는 공간의 측면에서 '술집'과 '다방'이 대조되고 있다.

3.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가 신문사에서 해고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 ② 예술에 대한 '김 선생'과 '그'의 견해 차이가 드러나 있다.
- ③ '김 선생'의 위로에 대해 '그'는 자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④ 독자들의 그릇된 취향에 대한 '김 선생'의 한탄을 엿볼 수 있다.
- ⑤ '그'는 생존의 측면에서 정신 노동이 허울에 불과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4. [A]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논의한 내용이다. 적절한 의견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3점]

- ① '화성인들의 계략에 빠져 포로가 되어 생명이 위협해져 있는 아툼×군'은 생존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그'의 자화상으로 보여.
- ② '사람들이 항상 요구하'는 '다음 호에 계속'에서 보듯이 '그'는 독자의 알파한 흥미에 영합해야만 하는 이 시대 예술가들의 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 ③ '술을 찍어서 아툼×군을 지운다'는 것에서 타의에 의해 더 이상 만화를 연재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는 '그'의 비애가 느껴져.
- ④ '그'는 아툼×군이 '적진을 뚫고 나오기'를 바라지만 그 소망이 실현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
- ⑤ '아툼×군이 어두운 공간 속에서 영원한 소년'으로 살아있기를 바라는 데서 '그'는 초월적 세계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잔인한 도시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0909월 시행 평가원]

^[1]젊은이는 사내가 새를 사주지 않는 데 대한 원망의 기색은 손톱만큼도 나타내지 않았다. ^[2]그는 될수록 사내가 난처해질 소리들만을 골라서 그를 괴롭게 몰아붙이는 것이었다. ^[3]그리하여 결국은 사내 스스로가 견디질 못하고 가게를 떠나 가게 하려는 것이었다.

- ^[4]아드님을 기다리신답니다. ^[5]아드님이 시골에 궁전을 지어놓고 영감님을 모시러 오시는 중입니다.

^[6]그는 때론 새를 사러 들어온 손님을 상대로 해서까지 그렇게 무참스럽게 사내는 비웃고 무안을 주었다.

- ^[7]어디만큼 왔나, 고개만큼 왔지…… 영감님은 날마다 혼자 꿈에 행복하시지요.

^[8]① 사내는 그러나 그런 젊은이의 비웃음을 아랑곳하려는 기색이 조금도 없었다. ^[9]그는 젊은이의 공박에 할 말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주위를 짐짓 외면해 버리곤 하였다. ^[10]젊은이가 정 그를 못 견디게 매도하고 들 때면 차라리 그 젊은이의 얄은 소갈머리가 가엾어 죽겠다는 듯 슬픈 눈길로 그를 한참씩 건너다보고 있다가는 조용히 혼자 한숨을 짓고 말뿐이었다.

^[11]하면서도 사내는 좀처럼 젊은이의 새 가게를 떠날 생각을 않고 있었다. ^[12]아니 그는 젊은이 의 그런 버릇없는 공박 따위로 가게를 아주 떠나 버릴 처지의 사람이 아니었다.

^[13]그에겐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었다.

- ^[14]너석들에게 모두 새를 사야……. ^[15]그래도 너석들에게 빠짐없이 모두 한 마리씩은 새를 살 수가 있어야……. ^[16]사내는 혼자 속으로 중얼거리곤 하였다. ^[17]그는 아직도 가막소¹⁾ 안에 남아 있는 친구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18]그 가엾은 친구들을 위해 새를 사지 않고 혼자서 이곳을 떠날 수는 없다고 몇 번씩 자신의 결심이 다짐했다. ^[19]그는 그저 지금 당장은 새를 사는 일이 달갑게 여겨지지 않고 있을 뿐이었다. ^[20]새를 사더라도 전달처럼 즐겁거나 기분이 가벼워지질 못하고 있는 것뿐이었다.

^[21]하지만 사내는 그것도 그저 그 빌어먹을 잠자리의 악몽 때문일 거라 자신을 변명했다. ^[22]밤마다 그를 괴롭혀대고 있는 빗줄기의 꿈만 꾸지 않게 되면 그는 다시 기분이 회복되어 새를 즐겁게 살 수 있으리라 자신을 기다렸다. ^[23]도대체가 새들이 낙엽처럼 빛을 맞고 떨어져 내리는 악몽이 계속되는 동안은, 그리고 그 빌어먹을 새들이 어째서 이 공원 숲을 떠나지 못하고 자꾸만 다시 조롱 속으로 붙잡혀 돌아오는지, 그런 사연을 석연히 이해하지 못하고는 새를 다시 사고 싶은 생각이 일어오질 않았다. ^[24]그런 마치 어린애들 숨바꼭질과도 같은 어리석은 장난일 뿐이었다.

^[25]한데 그러던 어느 날, 사내에겐 또 한 가지 ㉠ 이상스런 일이 일어났다.

^[26]사내는 이날 밤도 그 공원 숲 벤치 위에서 추운 새우잠을 건디고 있었는데, 자정을 한 시간쯤이나 지난 무렵이었을까, 예의 전기불빛이 다시 공원 숲 속을 훑어대기 시작했다. ^[27]

이번엔 물론 꿈이 아니었다. ^[28]실제로 빗줄기를 앞세운 ㉡

밤새 사냥이 시작된 것이었다. ^[29]사내는 벌써부터 ㉢ 까닭을 알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사지가 움츠러들고 있었다.

^[30]하지만 이번엔 다행스럽게도 전번날 밤과는 사정이 훨씬 달랐다.

^[31]빗줄기가 아직 사내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32]아니, 이날 밤은 그 밤새 사냥꾼이 제 편에서 미리 사내의 잠자리를 피해 주고 있었는지도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33]불빛은 좀처럼 사내 쪽으로 다가들 기미를 안 보이고 있었다. ^[34]사내와는 한참 거리가 떨어 진 숲들만 이리저리 분주하게 휘저어대고 있었다. ^[35]불빛을 맞은 밤새들이 낙엽처럼 어둠 속을 휘날리고 있을 뿐이었다.

^[36]불빛은 거의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 같았다.

^[37]하지만 이미 줄음기가 말끔 달아나 버린 사내는 모른 채 하고 다시 잠을 청할 수도 없었다.

^[38]그는 이윽고 야전잠바 옷깃을 들추고 천천히 벤치 위로 몸을 일으켜 앉았다. ^[39]그리고는 차분한 손짓으로 야전잠바 주머니 속을 뒤져 콩초 한 대를 찾아 물었다.

^[40]사내가 그 야전잠바 옷깃으로 불빛을 기리며 입에 문 콩초에다 막 성냥불을 그어 붙이려 던 순간이었다.

^[41]후루루-

^[42]어둠 속 어느 방향으로가부터 느닷없이 사내의 잠바 깃속으로 날아와 박혀드는 것이 있었다. ^[43]담뱃불을 붙이려다 말고 사내는 자신도 모르게 흠칫 놀라 손에 든 성냥불부터 날썰게 꺼 없앴다. ^[44]그리고는 그의 가슴께 잠바 깃 속으로 박혀든 물체를 재빨리 더듬어 냈다.

^[45]사내는 이내 물체의 정체를 알 수 있었다. ^[46]다름 아니라 그것은 방금 ㉣ 숲 속의 불빛에 쫓겨 온 한 마리의 새였다. ^[47]부드럽고 따스한 감촉이 손에 닿을 때부터 사내는 벌써 그것을 알 수 있었다. ^[48]옷깃 밖으로 끌려나온 새는 두려움 때문인지 가슴이 몹시 팔딱거리고 있었다. ^[49]사내가 담뱃불을 붙이기 위해 옷자락에 성냥불을 켜올 때 너석은 그 불빛을 보고 달려든 게 분명했다.

^[50]“빛에 쫓긴 너석이 외려 또 불빛을 보고 덤벼들다니……. 역시 새 짐승이란…….”

^[51]사내는 너석의 ㉤ 분별없는 행동이 회한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였다.

^[52]하지만 사내의 그런 생각이 오히려 오해였는지도 알 수 없었다.

^[53]사내는 잠시 너석을 어떻게 해 주어야 좋을지를 생각해 보았다. ^[54]너석을 금세 그냥 그대로 놓아 보낼 수는 없었다.

^[55]너석은 몹시 겁을 먹고 있었다. ^[56]빗줄기에 쫓긴 너석이 사내에게서 또 한 번 놀라고 있었다. ^[57]놀란 너석을 무작정 다시 어둠 속으로 달아나게 할 수는 없었다.

^[58]그는 너석에게 좀 안심을 시켜서 놓아주기로 작정했다.

- 이청준, <잔인한 도시>

1) 가막소 : 교도소

5.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장면의 빈번한 전환으로 인물 사이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 ② 과거와 현재를 병렬적으로 배치하여 특정 사건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인물이 추리 과정을 통해 특정 사건의 의미를 탐색하게 하고 있다.
- ④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의 내면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 ⑤ 짧고 감각적인 문장을 활용하여 공간적 배경을 세밀하게 그리고 있다.

6.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새 가게’ 이외에는 거처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 ② ‘젊은이’의 태도에 대해 무언의 항변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③ ‘가막소’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 할 일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 ④ ‘젊은이’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 ⑤ ‘아들’이 자기를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7.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해석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이 소설은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세계에 맞서 그것의 정체를 드러내어, 이를 부정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억압적인 세계에 길들여져 있는 인간의 모습을 통해 현실 사회가 부정적인 공포의 공간이 되는 모순을 부각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은 공원 숲에서 멀리 달아나지 못하고 도리어 불빛 속으로 뛰어드는 새를 ‘사내’가 목격하고, 공원 숲이 더 이상 휴식의 공간이 될 수 없음을 깨닫는 데서 잘 드러난다. 또한 이 소설은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현실의 횡포와 기만에 대한 분노를 통해, 폭력과 억압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다.

- ①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세계는 ‘공원 숲 속을 훑어 대기 시작’하는 전깃불빛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 ② 억압적인 세계에 길들여져 있는 인간의 모습은 ‘공원 숲을 떠나지 못하고 자꾸만 다시 조롱 속으로 붙잡혀 돌아오는’ 새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현재의 공간이 부정적인 공간이 되는 것은 사냥꾼에 쫓긴 ‘밤새들이 낙엽처럼 어둠 속을 휘날리’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④ 현실의 횡포와 기만에 대한 분노는 ‘줄음기가 말끔 달아나 버린 사내’가 ‘모른 체하고 다시 잠을 청할 수’ 없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자유를 억압하는 강압적인 폭력의 결과는 ‘새들이 낙엽처럼 빛을 맞고 떨어져 내리는’ 상황을 통해서 암시되고 있다.

8. ㉠~㉥ 중, ‘사내’가 ‘그런 사연’을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으로 거리가 먼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잔인한 도시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0503월 교육청]

젊은이는 다시 가게 안쪽에 숨겨 놓은 비밀 집합사에서 새 새들을 꺼내다가 비워진 장들을 채워 넣고 있었다. 사내로선 물론 가게 안에 차려진 집합사에 새들이 몇 마리쯤 숨겨져 있는지 들여다볼 기회가 한 번도 없었지만, 젊은이는 아마도 그 비밀 집합사에 새가 바닥이 나게 버려 두는 일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았다. 특히나 오전 동안엔 젊은이가 바깥 새장을 비워 두는 일이란 절대로 없었다. 가게 안 비밀 집합사엔 언제나 여분의 새들이 얼마든지 비워진 장을 채우게 될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젊은이가 비밀 집합사를 들어갔다 오면 두 마리고 세 마리고 그의 손아귀엔 언제나 그가 필요한 수만큼의 새들이 움켜져 나왔다.

이날도 젊은이는 벌써 스무 개 이상의 빈 새장을 새로 채워 넣고 있었다.

사내는 계속 다시 채워진 새장 앞에서 자신의 충동을 견뎌 내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 한 새장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사내가 무슨 버릇처럼 한 새장 문을 손가락 끝으로 톡톡 건드리자 장 속의 새가 포르륵 날개를 펴득여 그의 손가락 쪽으로 날아와 붙었다.

사내가 손가락을 좀더 깊숙이 장 속으로 디밀었다. 그러자 다시 장 속의 새는 녀석의 조그만 부리로 사내의 손가락 끝을 조심스럽게 한두 번 콕콕 쪼아대는 시늉이더니, 나중에는 겁도 없이 훌쩍 그 손가락 위로 몸을 날려 내려앉았다. 그리고 쫓지를 가볍게 간들거리며 조그만 눈망울로 말뚱말뚱 그의 표정을 살피고 있었다.

사내는 한동안 거의 났을 잃은 듯한 얼굴로 장 속의 새 앞에 못박혀 서 있었다. 사내의 초라한 입가에 이윽고 누런 웃음이 번졌다. 그리고 거기서 그 사내의 오랜 기다림이 끝났다.

“그래, 나도 이제 네놈을 알아볼 수 있구말구…….”

사내는 혼잣말처럼 낮게 중얼거리고 나서, 다시 가갯집 젊은이를 향해 자랑스럽게 말했다.

“내 오늘은 이 녀석을 사 주겠소.”

그는 곧 야전잠바 주머니를 뒤져 동전 스무 닢을 세어 내놓고 나서, 이제 젊은이의 응낙을 기다릴 것도 없이 스스로 새장 문을 따기 시작했다.

그는 열린 장문 사이로 손을 디밀어 녀석을 조심스럽게 손바닥에 싸안았다. 그리고 무슨 소중한 물건이라도 다루듯 자신의 코 앞까지 녀석을 높이 치올려 들고는 사람에게 하듯이 중얼중얼 말했다.

“하지만 이제 알아 두거라. 여긴 네놈들에게 그리 즐거할 곳이 못된다는 걸 말이다. 그래 나도 이제 네놈한테 마지막일 테니 이번엔 좀 날개가 저리도록 멀찌감치 하늘을 날아가 보거라…….”

손안에 든 새가 사내를 재촉하듯 날개를 두어 번 펴득대고 있었다.

그러자 사내도 이제 그만 녀석을 놓아줄 자세를 취했다. 펴득여 대는 녀석의 양 날개 밑으로 손끝을 집어넣어 녀석을 높이 받쳐 올렸다. 그리고 그가 뭔가 혼잣말 같은 것을 입속으로 중얼대며 녀석을 막 놓아주려던 참이었다.

사내는 금세 뭐가 이상해졌는지 숲으로 놓아주려던 녀석을

다시 가슴팍 밑으로 끌어내렸다. 그리고는 녀석의 날개를 들추고 벌어진 날갯죽지 밑을 유심히 살폈다.

사내가 들춰낸 녀석의 양쪽 날개 밑엔 ㉠ **무슨 가위 같은 물건으로 속깃을 잘라낸 자국**이 역력했다.

사내는 일순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며 어째서 그런 일이 생기게 됐는지 짐작이 안 가는 듯 멍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중략>

그는 계속해서 남쪽으로 걸었다. 그리고 그의 등 뒤로 멀어져 가는 ㉡ **도시**의 하늘에서 자신의 치킨 발걸음을 채촉할 구실을 구하듯 때때로 고개를 뒤로 돌아보곤 하였다.

“그래 어쨌거나 우리가 녀석을 떠나는 건 백 번 천 번 잘한 일이었을 게다. 게다가 이제부터 도시엔 겨울 추위가 몰아닥치게 되거든. 너 같은 건 절대로 그 도시의 추위를 견디지 못한다. 작자도 아마 그걸 알았을 게다. 글썄, 네놈도 그 작자가 암말 못하고 멍청하게 날 바라보고만 있는 꼴을 봐 뒀겠지. 내가 네 놈을 데리고 떠나려 할 때…… 아, 그야 나도 물론 작자한테 그만한 값을 치르긴 했지만 말이다.”

맞은편 산굽이계로부터 도시를 향해 길을 거꾸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한 패가 사내의 곁을 시끌적하게 떠돌고 지나갔다.

사내는 잠시 말을 끊고 그 도시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일행을 스쳐 보냈다. 그리고 그들의 말소리가 등 뒤로 멀리 사라져 간 다음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마지막 반 해분만이라도 내 그 노역의 품삯을 한사코 주머니 속에 깊이 아껴 뒀던 게 천만다행이었지. 널 데려올 수 있었던 건 순전히 그 돈 덕분인 줄이나 알아라. 하για 그건 내가 정말로 집벌 닿는 날까지 기어코 안 쓰고 지니려던 거였지만…… 하지만 난 후회 않는다. 암 후회하지 않구말구. 그까짓 돈이야 몇 푼이나 된다구…… 이런 물골을 하고 빈손으로 고향 길을 찾기는 좀 뭇할지 모르지만, 그런다구 어디 사람까지 변했나…… 아니, 내 아들녀석도 물론 그런 놈은 아니구.”

사내는 제풀에 고개를 한번 세차게 흔들었다.

가슴 속 녀석이 응답을 해 오듯 발가락을 몇 차례 꼼지락거렸다. 그 바람에 잠시 발길을 멈추고 녀석의 발짓을 느끼고 있던 사내의 얼굴에 만족스런 웃음기가 번지고 있었다.

“그래, 어쨌든 잘했지. 떠나는 건 잘했어.”

사내는 다시 발길을 떼 옮기며 말하기 시작했다.

“녀석도 아마 잘했다고 할 거야. 글썄, 이렇게 내가 제발로 녀석을 찾아 나섰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우리도 거기서 겨울을 지낼 뻔했질 않았나 말이다.”

그리고 사내는 뭔가 더욱 은밀하고 소중한 자신만의 비밀을 즐기듯 몽롱스런 눈길로 중얼거림을 이어 갔다.

“너도 곧 알게 될 게다. 우리가 함께 남쪽으로 길을 나서길 얼마나 잘했는가를 말이다. 남쪽은 북쪽하곤 훨씬 다르다. 겨울에도 대숲이 푸른 곳이니까. 넌 아마 ㉢ **대숲**이 있는 곳이면 겨울도 그만일 테지. 내 녀를 그런 대숲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줄 테다. 녀석의 집 뒤꼍에도 그런 대숲은 얼마든지 많을 테니까. 암 대숲이야 많구말구…… 넌 그럼 그 대숲으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서 겨울을 나려무나…….”

사내의 얼굴은 이제 황홀한 꿈속을 헤매고 있는 사람의 그것처럼 밝고 행복하게 빛나고 있었다.

- 이청준, <잔인한 도시>

9. 위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내’와 ‘젊은이’라는 대립적 인물 간의 갈등이 바탕에 깔려 있다.
- ② ‘사내’와 ‘새’가 나누는 정감을 묘사하여 따스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 ③ ‘사내’는 따뜻하고 인간적인 것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 ④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사내’의 얼굴에는 행복이 담겨 있다.
- ⑤ 서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내’의 혼잣말은 그의 내면을 드러내는 데 효과적이다.

10.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에 나타난 ‘새’의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이 작품은 우화적(寓話的) 성격이 짙은 소설입니다. 우화란 어떤 일을 경계할 목적으로 비유적, 상징적 소재나 표현을 사용하여 만든 이야기라 할 수 있는데, 그에 따라 독자는 작품 자체의 의미보다는 그것이 암시, 경계하는 바에 주안점을 두고 읽어야 합니다. 새는 일반적으로 자유를 표상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 글에서는 어떨까요?

- ① 선주 : ‘새’가 돈으로 사고파는 거래의 대상이라는 점이 인상적이라. 그렇게 되면 그 자유는 제한적이고 불구의 것이 될 수밖에 없어.
- ② 영기 : 이 글에서 ‘새’는 마음껏 날아갈 수 없게 된 존재로 그려져 있어. 그런 점에서 ‘새’는 구속된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 같아.
- ③ 재승 : ‘새’를 멀리 날아가지 못하게 하는 ‘젊은이’는 자유에 대한 억압이나 폭력을 상징하는 존재로 해석할 수 있어.
- ④ 지인 : ‘새’와 ‘사내’의 이미지가 겹쳐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 글에서 ‘새’는 억압의 굴레에 갇혀 있는 인간 존재를 상징하는 것 같아.
- ⑤ 대현 : ‘새’는 숲에 있기도 하고 비밀 집합사에 갇혀 있기도 해. 이런 점에서 ‘새’는 자유와 구속이라는 존재의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어.

1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내’가 느꼈을 충격과 환멸을 짐작케 한다.
- ② ‘도시’라는 공간의 실체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 ③ ‘사내’의 ‘기다림’이 더욱 심화될 것임을 암시한다.
- ④ ‘가위’와 ‘속갓’의 이미지 대조를 통해 강한 인상을 준다.
- ⑤ ‘젊은이’가 만들어 놓은 ‘비밀 집합사’의 비밀이 폭로된다.

12. <보기>에서 ㉡와 ㉢가 함축하고 있는 공간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보기>

금붕어는 아침마다 말숙한 찬물을 뒤집어쓴다 떡가루를 흰손을 천사의 날개라 생각한다. 금붕어의 행복은 어항 속에 있으리라는 전설(傳說)과 같은 소문도 있다.

금붕어는 유리벽에 부딪혀 머리를 부수는 일이 없다. 얇전한 수염은 어느새 국경(國境)임을 느끼고는 아담하게 꼬리를 젓고 돌아선다. 지느러미는 칼날의 흉내를 내서도 향아리를 끊는 일이 없다.

아침에 책상 위에 옮겨 놓으면 창문으로 비스듬히 햇볕을 녹이는
붉은 바다를 흘려본다. 꿈이라 가르쳐진
그 바다는 넓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금붕어는 아롱진 거리를 지나 어항 밖 대기(太氣)를 건너서 지나해(支那海)의
한류(寒流)를 끊고 헤엄쳐 가고 싶다. 쓴 매개를 외락와락
삼키고 싶다. 옥도(沃度)빛 해초의 산림 속을 검푸른 비늘을 입고
상어에게 쫓겨다녀 보고도 싶다.

- 김기림, <금붕어> 중에서

- | | ㉡ | ㉢ |
|---|-----|----|
| ① | 어항 | 책상 |
| ② | 어항 | 바다 |
| ③ | 유리벽 | 책상 |
| ④ | 유리벽 | 거리 |
| ⑤ | 책상 | 거리 |

차나 한잔(김승옥)

1) ㉡ ㉢ ㉣ [내용 이해를 통해 작가의 의도 추론] 이 글에서는 한 만화가의 이야기를 통해 도시인들의 삶과 인간관계의 양상을 포착하고 있다. ‘그’는 예술가로서 신문 연재 만화를 그려 생계를 이어가지만 독자의 흥미 위주의 취향을 맞추는 데 실패하자 여지없이 해고를 당한다. 근대화된 도시를 살아가는 소시민의 삶이 얼마나 불안정한 토대 위에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해고를 통보 받는 순간 신문사 문화부장이 하는 말, 연재를 부탁하러 갔을 때 문화부장이 하는 말은 진정성이 결여된 도회적인 완곡어법으로 계약적이고 비정한 인간관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2) ㉡ ㉣ ㉤ [어법이 가지는 상징성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작품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탐구]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차나 한잔’은 ‘그’의 취기 어린 말에서 드러나듯이 계약 사회인 도시에서의 인간관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완곡어법이다. ‘그’가 연재를 부탁하러 문화부장에게 갔을 때, 문화부장은 ‘차나 한잔 하자’며 ‘다방’으로 데려가 ‘만화가’인 ‘그’를 모욕하고 무책임한 말로 ‘그’를 무안하게 만든다. 해고로 인해 생존의 위협에 처한 데서 오는 불안, 해고를 통보받을 때 받은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는 인물이 ‘김 선생’이며, 이들의 대화는 술집에서 술을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한잔 하세’와 ‘차나 한잔 하자’는 서로 대비되는 두 인간관계를 상징하는 어법임을 알 수 있으며, 그것이 ‘술집’과 ‘다방’이라는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 위에서 주어진 <보기>를 본다고 했을 때, 문화부장 인물 유형과 김 부장 인물 유형이 대등하게 존대한다고 볼 수 없다. 계약적인 이해 관계를 중시하는 근대 도시 사회를 대표하는 인물 유형이 문화부장이 때문이다.

EB스에 수록된 이태준의 <파강랭>의 ‘김’, 수능 기출인 <돌다리>에 나오는 ‘이해를 타산하는 소리’, 실리를 중시한은 ‘창섭’에 해당하는 인물 유형이 바로 문화 부장인 것이다.

3) ㉡ ㉢ ㉣ [대화 장면에서 대화 양상, 인물이 처한 상황, 심정,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

※ 그가 해고라는 고통을 당할 때, 김 선생은 그 고통에 공감해 주고 위로해 주는 인물이다. 그러므로 갈등(견해차이)가 그와 김 선생 사이에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 만약 그가 김 선생과 생각과 달리 회화적인 선 따위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는 대중이 좋아하는 양키들 만화 같은 선을 그렸을 것이다.

‘김 선생’이 ‘우리나라 만화가들의 단순하면서도 회화적인 선’의 훌륭함을 말한 것은 ‘그’를 위로하기 위한 말로, ‘그’가 해고를 당한 이유를 암시한다. 즉 ‘그’의 만화는 훌륭하지만 독자들의 취향에는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동시에 이 말에서는 ‘양키들 만화’만을 찾는 독자들의 그릇된 취향, 당대의 문화적 풍토에 대한 한탄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위로에 대해 ‘그’는 ‘만화가 우스우면 그만이지 쥐뿔나게 회화적이고 아니고를 찾게 됐어요?’라고 말하는데, 이를 단순히 ‘그’가 ‘김 선생’의 말을 부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밀려나 추방당한 자의 절망과 비애, 생존의 위기에 처한 데서 오는 불안, 해고당하는 과정에서 받는 모욕과 수치 등이 한데 어우러져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자학적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대에서

‘정훈’으로 근무할 때 ‘그’가 느꼈던 감정을 토로하는 부분, 군대에서 ‘총대를 진 사람들’이 지금은 ‘안정된 직장’에 있을 거라는 억측 등은 단순한 술주정이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만화를 그리는 ‘그’를 부러워했지만 정작 자신은 늘 불안 속에서 살았고 마침내 해고를 당했으나, 생존의 측면에서 정신노동(예술)이란 결국 다 허울에 불과한 것이라는 생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안정을 희구하는 소시민적 소망이 좌절된 상황과 그에서 비롯된 절망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당시의 정신노동자, 예술가의 허약하기만 한 삶의 토대를 암시하는 것으로도 읽을 수 있다.

※ 술의 취한 그의 말에는 다소간의 논리적 비약이 있지만, 그의 생각 속에서 과거 군대에서 가졌던 정훈(정신훈련을 담당하는 군대 보직)이란 보직은 총대를 맨 일반 군인과 대비되는 것이다. 안정적인 직장(회사, 공장 등)과 대비되는 직업으로서의 만화는

① 남들은 편할 것이라고 부러워한다. (정훈은 고된 훈련을 받지 않고, 만화가들은 매일 출근해서 일할 필요가 없으니까)

② 정작 본인은 마음이 편치 못하고 불안하다.

라는 점이 정훈과의 공통점이 있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4) ㉡ ㉢ ㉣ [특징적인 서술 전략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인물과 관련하여 탐색] ‘화성인들의 계약에 빠져서 포로가 되어 바야흐로 생명이 위협해져 있는’ 아톰X군은 결국 해고를 당한 ‘그’의 자화상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이 닳투리의 마지막에서 아톰X군이 ‘어두운 공간 속에서 영원한 소년으로 살아 있게’라고 말한다. 술을 찍어 그려놓은 아톰X를 지우는 데서 보듯이 ‘그’는 더 이상 만화를 연재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것도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그럴 것이라는 말이다. 독자는 짜릿한 흥미를 좇고 그러한 독자의 흥미를 맞춰주지 못한 만화가의 퇴출된다. 자신에게는 더 이상 그럴 힘이 없기에 그는 아톰X군이 ‘군의 힘으로 적진을 뚫고 나오기를 부탁한다.’ 그러나 이러한 소망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러기에 아톰X는 ‘어두운 공간’ 속에서 영원한 소년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이 광대한 우주 공간 속에 버려진 미아가 되고 마는 것이다.

※ <차나 한잔>에서 ‘그’가 추구하는 것은 탈속적이고 초월적인 삶이 아니다. 만화 연재를 팔리지 않고, 꼬박꼬박 원고료를 받아서 생계를 이어가고 가끔은 아내와 쇼핑도 할 수 있는 삶이다. 지극히 소박하지만 일상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살고자 했지만 신문사에 돈벌이가 되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 수 없게 되었을 뿐이다.

잔인한 도시(이청준)

5) ㉡ ㉢ ㉣ (서술상의 특징 파악)

※ ²³⁾ 도대체가 새들이 낙엽처럼 빛을 맞고 떨어져 내리는 악몽이 계속되는 동안은, 그리고 그 빌어먹을 새들이 어째서 이 공원 숲을 떠나지 못하고 자꾸만 다시 조롱 속으로 붙잡혀 돌아오는지, 그런 사연을 석연히 이해하지 못하고는 새를 다시 사고 싶은 생각이 일 어오질 않았다.

☞ 사내는 자신이 돈을 주고 산 새들이 공원 숲을 떠나기를 바라지만 그 새들은 공원 숲을 떠나지 못하고 다시 조롱 속으로 붙잡혀 돌아오는 현실에 괴로워하고 있다. 사내의 이러한 괴로움(갈등)이 해소되는 것은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대목 이후에 벌어질 내용은 사내가 그러한 사연을 이해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 2014년 수능B 기출인 이청준의 <소문의 벽>의 경우,

두 번째 문제의 정답은

③ 주인공의 두 경험을 연관 지어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단서를 제공한다.

이었다.

사건의 의미를 추리해 가는 과정이 이청준 소설의 중요한 특징임을 참고.

※ 이 세트의 세 번째 문제, 즉 8번 문제의 발문을 보시라.

㉠~㉢ 중, '사내'가 '그런 사연'을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으로 거리가 먼 것은?

㉠~㉢를 통해서 사내가 그런 사연을 이해해가는 과정임을 문제 자체가 알려주고 있다. 참고하시라.

㉠ ① 이 작품에서 사건은 주로 새 가게와 공원의 숲에서 벌어지고 있으므로 장면의 빈번한 전환이 일어난다고 볼 수 없다. ② 제시된 지문 내에서는 주로 현재를 중심으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④ 인물 간의 대화이 거의 없다. ⑤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은 공원의 숲과 벤치, 새 가게 등인데, 제시된 지문에서는 공간적 배경을 세밀하게 묘사한 대목을 찾을 수 없다. (그냥 컴컴하다.)

㉡ ③ ㉢ (인물의 행동의 이유 추리) 이 작품에서 사내는 아직도 할 일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여 새장수 젊은이의 비웃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새 가게 주변을 맴돈다. 사내는 지금 교도소에 남아 있는 친구들을 위해 새장수에게 새를 사서 방생하는 일을 하고 있다. 교도소에 있는 친구(동료)들 모두를 위해 빠짐없이 한 마리씩 새를 사서 방생하는 일이 바로 그가 해야 할 일인 것이다. 그렇게 교도소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에서처럼 젊은이의 비웃음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 ① 사내가 거쳐하는 곳은 새 가게가 아니라 공원의 벤치이다. ② '젊은이'에게 무언의 항변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단서가 없다. ④ '젊은이'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만한 단서를 찾을 수 없다. ⑤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젊은이'의 말에서만 나타나고 '사내'가 정말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만한 단서를 찾을 수 없다.

㉢ ④ ㉣ (외적 준거를 활용한 작품 감상의 적절성 판단) 여기 제시된 지문은 인물이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세계를 발견하고 자각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고, 아직 현실의 횡포와 기만에 대한 분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졸음기가 말끔히 달아나 버린 사내'가 '모든 채하고 다시 잠을 청할 수' 없는 것은 놀라움에서 안도에 이르는 정서 변화 과정에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럽고 생리적인 현상일 뿐이므로, 이를 통해 현실의 횡포와 기만에 대한 분노를 확인할 수는 없다.

※ <보기>에서 말하는 비판, 분노, 저항 등등의 주체는 '작가'로서 이것들이 작가의 의도, 즉 작품의 주제일지언정 소설 속의 인물이 보여주는 성격이나 태도는 아니다.

^[30] 하지만 이번엔 다행스럽게도 전번날 밤과는 사정이 훨씬 달랐다

^[36] 불빛은 거의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 같았다.

등의 표현에 주목할 것.

※ <보기>에서 보여준 작가의 의도, 작품의 주제와 선택지에 보여주는 인물의 태도를 같은 것으로 착각하게 하여 오답률을 높였던 평가원의 출제 스타일은

12년 09월 시행 평가원, <열녀춘향수절가>

2013년 수능, <천변풍경>

에서 9월 평가원과 수능에 연달아 사용된 적이 있다.

㉡ ① '공원 숲 속을 훑어 대기 시작' 하는 전지불빛은 새 사냥꾼이 새 사냥을 하는 장면에 해당하므로 '공원 숲 속'은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세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② '공원 숲을 떠나지 못하고 자꾸만 다시 조롱 속으로 붙잡혀 돌아오는' 새들의 모습은 억압적인 세계에 길들여져 있는 인간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어둠'의 부정적 이미지로 볼 때 사냥꾼에 쫓긴 '밤새들이 낙엽처럼 어둠 속을 휘날리'는 장면은 현재의 공간이 부정적인 공간이 되는 것을 상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⑤ '새들이 낙엽처럼 빛을 맞고 떨어져 내리는' 상황은 자유를 억압하는 폭력의 결과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8) ㉢ ③ ㉣ (어구의 문맥적 의미 추리) '그런 사연'은 '새들이 공원 숲을 떠나지 못하고 자꾸만 다시 조롱 속으로 붙잡혀 돌아오는 사연'이다. '사내'가 '그런 사연'을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은 우선 밤에 발생하는 새 사냥(㉠)의 본질이다. ㉠, ㉡는 모두 '밤새 사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는 '밤새 사냥'의 결과로 일어난 새들의 행동(숲을 떠나지 못하고 다시 붙잡혀 돌아오는 것)을 가리킨다. 하지만 ㉣는 '사내'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이는 '사내'가 '그런 사연'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이다.

잔인한 도시(이청준)

9) ㉢ ④ ㉣ [주제와 관련지어 서술상의 특징 이해] '마지막 반 해 분만이라도 내 그 노역의 품삯을 한사코 주머니 속에 깊이 아껴뒀던 게' 등의 구절에서 '사내'가 귀향을 준비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지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내'의 얼굴이 행복하게 빛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의 '준비'와 후자의 '행복'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가지지 못한다. '사내'의 행복은 잔혹한 도시를 떠나 '새'와 함께 따스한 대숲이 있는 고향으로 떠나는 데서 오기 때문이다.

※ 사내는 오랫동안 귀향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지금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귀향을 준비하기 위해 모아 온 돈을 써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새를 구할 수 있어서 행복한 것이다.

㉡ ① 지문에서 '사내'와 '젊은이'의 직접적인 대립과 갈등을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젊은이'는 새의 속깃을 잘라내고 비밀 집합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 '사내'는 새를 자유롭게 해주려고 한다는 점 등을 통해, 두 대립적 성격의 인물이 이 작품의 기본적 갈등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갈등(葛藤)은 인물이 갖는 욕망과 가치관이 다른 인물, 세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지 다툼이나 싸움 자체를 가리키는 말은 아니다.

※ 다만 수능이라면 선택지에 갈등이란 말을 피하고

2009년 수능, 김승옥의 <역사>의 첫 번째 문제의 정답처럼

'인물들의 서로 다른 특성을 제시하며~' 하며 등의 표현을 이용했을 듯. 참고하시길.

② 속깃을 잘라낸 흔적, 비밀 집합사에서 결정적으로 보여주듯 이 글의 전반적 분위기는 비정함, 잔혹함에 있다. 그러나 '새'를 두고 하는 '사내'의 혼잣말과 그에 반응하는 '새'의 움직임 등이 묘사된 부분에서는 이러한 잔혹함과 대조되는 인간적 따스함을 느낄 수 있다.

10) ㉢ ⑤ ㉣ [소재가 갖는 상징성에 근거하여 작품의 의미 이해] '젊은이'는 비밀 집합사에서 언제나 필요한 만큼의 새를 꺼내온다. 이는 '젊은이'에 의해 속깃이 잘렸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등장하는 새들은 자유를 빼앗겼을 뿐 아니라 그 구속의 상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이를 존재의 성격과 관련짓는다면 해

어날 수 없는 굴레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사내’와 ‘새’의 관계, ‘사내’의 혼잣말과 그에 반응하는 ‘새’의 몸짓, ‘사내’가 혼잣말에 자주 구사되고 있는 ‘우리’라는 말 등에서 ‘새’와 ‘사내’의 이미지가 겹쳐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 ㉡ ③ ㉢ [서사의 흐름과 관련하여 장면에 함축된 의미 이해]

‘사내’와 ‘새’의 공감각이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장면에 ‘그 사내의 오랜 기다림이 끝났다’는 구절이 나온다. 지문 전체의 내용으로 보아 그 기다림은 따스한 것, 인간적인 것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의 속깃이 잘려나간 흔적을 통해 젊은이의 비밀 집합사의 비밀을 알게 된 ‘사내’는 잔혹한 도시를 떠나 남쪽을 향한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찾아 나서게 되는 것이다. ㉠ ④ ‘가위 같은 물건으로 속깃을 잘라낸’ 것만으로도 충격적이다. ‘가위’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날카로운 물건이다. ‘속깃’은 여리고 부드러운 부분이다. 이러한 이미지의 대조를 통해 도시의 잔혹성과 폭력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12) ㉡ ② ㉢ [주제와 관련하여 공간의 상징적 의미 파악] <보기>에

서 ‘금붕어의 행복은 어항 속에 있으리라는 전설과 같은 소문도 있다’는 등의 구절로 보아, ‘금붕어’는 ‘어항’에 갇혀 있는 것이며, 그곳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공간이다. ‘금붕어’는 ‘꿈이라 가르쳐진’ 바다를 생각한다. ‘어항’속의 ‘떡가루와 흰손’ 보다는 ‘상어에게 쫓겨다니’더라도 그 바다에서 자유롭게 유평하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 ‘도시’는 자유를 억압하고 구속하는 공간이고, ‘사내’는 그곳을 벗어나 ‘새’와 함께 ‘대숲이 있는 곳’을 찾아 떠난다. ‘사내’는 ‘황홀한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